우암학원 창학67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674호 1판 (음력 12월 9일) 2018년 1월 25일 목요일

RADIANT XROSSOVER NEW GENERATION RX 발견하라. 감동하라
www.hyosunglexus.com
LEXUS
광주전시장 080-384-7733
전주전시장 080-263-7743

정현 4강 신화 "아직 안 끝났다"

24일(현지시간)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호주오픈 테니스대회 남자 단식 8강전에서 한국 테니스의 간판 정현(58위)이 미국의 테니스 샌드그렌(97위)에 승리를 거둔 뒤 환호하고 있다.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정현은 "응원해주신 한국분들께 감사하다. 아직 안 끝난 거 안다. 금요일에 뵙겠다."며 26일 준결승전을 기약했다. /연합뉴스

호주오픈 테니스 샌드그렌 3-0 완파 … 한국선수 첫 메이저 준결승 진출

정현(22·삼성증권 후원)이 한국을 넘어 세계 테니스 역사를 바꿨다. 〈관련기사 20면〉

정현은 24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호주오픈 테니스대회(총상금 5500만 호주달러·약 463억원) 남자단식 8강에서 테니스 샌드그렌(97위·미국)을 3-0(6-4 7-6〈7-5〉 6-3)으로 꺾고 4강에 진출했다.

앞선 16강전에서 전 세계 1위 노바크 조코비치(14위·세르비아)를 제압했던 정현이지만 강력한 포핸드 스트로크로 무장한 샌드그렌의 기세에 막혀 고전하기도 했다. 3세트 게임 스코어 5-3에서 40-0으로 앞서가다가 듀스까지 허용했지만 최후의 승자는 정현이었다.

두 사람의 대결은 호주 오픈 '돌풍 주역'들의 만남으로도 눈길을 끌었다. 32강에서 알렉산더 즈베레프(4위·독일)를 물리친 정현은 16강에서는 조코비치까지 제압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다. 샌드그렌도 스탄 바브링카(8위·스위스)와 도미니크 팀(5위·오스트리아)을 잇따라 누르고 8강 무대에 진출했다.

정현은 샌드그렌의 돌풍까지 잠재우며 86년 만에 호주 오픈 남자단식 4강에 오른 아시아 선수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1905년 출범한 호주 오픈에서 아시아인으로 남자단식 4강에 오른 선수는 사토 지로(일본·1932년)가 유일하다.

정현은 이미 한국테니스계의 전설 이형택(42·은퇴)을 넘어섰다.

정현은 앞선 16강에서 자신의 우상 조코비치를 꺾는 파란을 일으키며, 이형택이 2000년과 2007년 US오픈에서 세운 메이저 대회 16강 진출 기록을 뛰어넘었다.

정현이 일으킨 호주발 돌풍은 이제 태풍이 됐다. 한국 팬들은 물론 전 세계 테니스 팬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인식시킨 정현, 그의 시선이 26일 준결승 무대로 향해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통합 반대파 당명 '민주평화당' 결정

국민의당 중재파, 안철수 대표 28일까지 사퇴 요구 … 신당 창당 합류 전망도

국민의당 통합 찬성파와 반대파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는 가운데 24일 통합 반대파가 별도 신당의 당명을 '민주평화당'으로 결정했다. 〈관련기사 3면〉

이런 가운데 당내 중재파도 안철수 대표에게 당내 통합 반대파의 신당 창당 발기인 대회일인 오는 28일 이전까지 사퇴할 것을 요구해 결과가 주목된다.

국민의당 통합 반대 진영의 신당 창당추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새 당의 명칭으로 '민주평화당'을 사용하기로 했으며, 당 상징색도 26일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8일 통합 반대파들이 신당 창당 발기인대회를 치르게 되면 다음 달 6일에는 중앙당 창당대회를 거칠 예정이어서 국민의당 분열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안철수 대표 등 통합 찬성 진영에서는 전날 통합 반대파들에 대해 "신당 창당을 하려면 주말까지 (탈당 등) 입장을 정리하라"고 최후통첩을 보낸데 이어 이날도 통합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당내 중재파들은 이날 박주선 국회부의장실에서 안철수 대표와 면담, 통합에 앞서 대표직 사퇴를 요구했다. 이날 박주선, 김동철, 주승용, 황주홍 의원 등은 "당이 분열되지 않으려면 통합 반대파들의 신당 창당 발기인 대회 이전 대표직 사퇴 밖에 길이 없다"고 요구했으며 안 대표는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안 대표가 다음달 4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표직을 사퇴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중재파들이 결국 통합 반대 진영의 신당 창당에 합류하지 않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당내 중재파들은 당분간 정치적 행동을 함께하기로 결정, 이들의 선택이 국민의당 진로에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당내 중재파에는 통합파로 알려진 송기석 의원 등은 물론 통합 반대 진영 의원들도 일부 합류할 가능성이 높아 최대 10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북극한파에 광주·전남 '꽁꽁' ▶6면
그림편지 - 김해성의 미얀마 ▶18면
KIA 김선빈 연봉 2억8천만원 ▶21면

사랑과 감사의 64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불멸의 광주 항쟁정신 보훈처, 전국화 시킨다

호남의병~5·18 특화 …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식 정부 행사로

5·18묘지에 힌츠페터 추모시설

정부가 광주학생독립운동, 5·18민주화운동 등 광주 항쟁 정신의 전국화에 나선다.

24일 국가보훈처와 광주지방보훈청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광주 학생독립운동 정신이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정부행사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대원 국가보훈처 대변인, 김주용 광주지방보훈청장, 최정식 국가보훈처 홍보팀장 등이 참석해 올해 중점 사업 계획, 방향 등을 설명했다.

김 청장은 "그동안 광주의 항쟁 정신이 타지역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며 "올해부터 광주 항쟁 정신을 '불멸의 광주정신'으로 재조명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호남 의병, 3·1운동, 학생독립운동, 산동교 전투(6·25전쟁), 3·15운동,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지는 광주만의 항쟁 정신을 특화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광주의 행사에 그쳤던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식을 전국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광주보훈청은 이를 위해 '광주학생독립운동 선양사업 추진 협의회'(가칭)를 구성했으며 25일 첫 실무협의회를 연다. 협의회에는 광주보훈청·광주시·광주시의회·광주시교육청·(사)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학생회관·학생독립운동연구소, 후손자회 및 동지회 등이 참여한다. 정부 차원에서는 행사지원을 확대하고 당시 상황을 재현한 퍼레이드, 사진전시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5·18과 관련해서는, 5·18을 세계에 알린 독일 기자 고(故) 위르겐 힌츠페터를 추모하는 공간도 국립 5·18 민주묘지 내에 마련된다. 현재 망월동 구 묘역에 힌츠페터의 유품(머리카락·손톱) 등이 안장돼 있다.

광주시와 5·18기념재단 등은 지난 2016년 힌츠페터의 유품을 국립5·18민주묘지 내에 기념식수와 함께 안치할 예정이었지만 국립묘지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구묘역으로 자리를 잡았다.

1960년 2월 28일 대구에서 일어난 2·28 민주화운동을 시작으로 마산 3·15운동, 서울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을 연계한 '민주의 횃불' 행사도 열린다. '민주의 횃불'은 광주 5·18민주광장에 대규모 국민참여행사로 피날레를 장식할 예정이다.

올해 5·18기념식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국가유공자 좌석도 마련될 예정이다.

다만 보훈처는 '임을 위한 행진곡' 국가지정곡 문제에 대해 "아직까지 특정 행사에서 특정 노래를 불러야한다는 법적 지정을 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좀 더 논의해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北 여자아이스하키 선수 12명 오늘 남으로

감독 1명·지원 인력 2명도 대표팀 훈련 진천으로 합류

우리와 단일팀을 구성해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북한 여자아이스하키 선수단이 25일 남쪽으로 내려온다.

북한은 지난 23일 밤 조명균 통일부 장관 앞으로 보낸 통지문에서 여자아이스하키 선수단 15명을 25일 파견하는 선발대와 함께 남측으로 보내겠다고 밝혔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북측 선수단 15명은 감독 1명, 선수 12명, 지원인력 2명 등으로 구성됐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이날 오후 북측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보낸 통지문에서 '북측 아이스하키 선수단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남측을 방문, 합동훈련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북측은 선발대를 경의선 육로를 통해 파견하겠다고 우리측에 통보한 바 있어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도 동일한 경로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여자아이스하키 선수단은 현재 우리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훈련하고 있는 진천으로 합류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남북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주재로 열린 '남북한 올림픽 참가 회의'에서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단일팀 엔트리는 기존 23명에서 북한 선수 12명이 추가된 35명으로 확대됐고 경기에는 북한 선수 3명이 출전하도록 했다.

한편, 북한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예술단 공연을 올림픽 개막 전날인 2월 8일 강릉아트센터와 11일 서울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각각 진행하겠다고 우리측에 통보했다. /연합뉴스